

안녕하세요.

4.16기억저장소 소장/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 운영실장을 겸직하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3번 김도연 엄마 이지성입니다.

Hello,

I am Jisung Lee, Chief of 4.16 Memory Storage, xxx of 4.16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stitute, and mother of Do-eon Kim (student of Danwon High School 2nd grade, classroom 3).

2014년4월 16일.. 이후

세월호참사로 단원고 희생학생 2학년3반 김도연, 세월호 유가족 김도연 엄마 이지성이라는 이름표로 모두에게 불리고 있으며, 9년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짙은 안개에 가려 있고 우리 모두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걸음을 서로서로의 손을 맞잡고 뚝뚝뚝 걸어가고 있습니다.

After April 16th of 2014,

I have been called by everybody as the mother of Do-eon Kim (Danwon High School 2nd grade, classroom 3), who was sacrificed in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also as Do-eon Kim's mother Jisung Lee, who is the Sewol Ferry bereaved family member. The truth of the Sewol Ferry disaster has been under the thick fog for 9 years, and we are all holding each other's hands and walking together to reveal the truth.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걸음과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기록들..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자261인의 마지막 수업의 공간이었던 『단원고 4.16기억교실』...

There have been steps to reveal the truth of the Sewol Ferry Disaster, records of remembering and acting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It was "Danwon High School 4.16 Memory Classroom," where 261 sacrificed students of Danwon High School had their last classes...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시간이 멈춘 곳, 시간은 멈춘 것 같지만 또 시간이 흐르는 곳.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마음이 모이는 공간 『단원고 4.16기억교실』입니다.

A place where time has stopped although time is passing by, a place where time is passing although time seems to be stopped.

It is "Danwon High School 4.16 Memory Classroom" where the hearts remembering the Sewol Ferry Disaster come together.

4.16기억저장소는

단원고4.16기억교실이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선생님의 숨결이 머물던 단원고등학교에서 나오기 전부터 공간 기록물을 목록화하고 정리했습니다. 혹여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못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다 체크하고 목록화했습니다. 교실존치 때의 자료, 제적처리에 관한 노숙농성, 단원고 이전 자료,

단원고 교실 철거자료를 토대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복원하였습니다. -

2021년 12월27일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단원고 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 제14호 지정

4.16 사회적 재난이라는 중요 사회사건에 대한 기록물로서 당대 교육문화, 재난을 둘러싼 집합기억의 공간 기록물로서 의의가 있다. 사회적 재난 아카이브, 교육사 및 학생생활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재난당사자의 자발적, 적극적 기록물 수집·보존·활용의 모범적 사례지자 4.16을 대하는 국가의 책임과 국민들의 위로, 기억의 장(場)이라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단원고 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 제14호 지정되었습니다.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 기록물 가치를 인정받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재난 아카이브의 공간 기록이며, 기록물 보존과 전시,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재난아카이브 공간기록의 현장인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생명의 존엄성, 안전, 인권, 정의, 평화를 논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기록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17일

4.16기억저장소 소장 4.16민주시민교육원기억관운영실장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3번 김도언엄마 이지성 올림